

---

## Chronic Varus Instability of The Hallux Interphalangeal Joint In a Judo Athlete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

주인탁 · 이호진

---

### ❖ 배경

무지의 지관관절은 경첩관절(hinge joint)로 시상면에서의 운동이 주로 일어나며, 중족-족지관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스포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안정성은 그 빈도가 적다. 저자들은 무지의 지관관절의 만성적 내반 불안정성과 이와 동반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치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 ❖ 증례기술

18세 남자로 유도선수로 활동하는 환자로 4년 전 운동 중 무지의 지관관절에 심한 내반력을 받은 후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운동 중 발생하는 지관관절의 아탈구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시행한 내반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지관관절의 아탈구가 보였으며 이와 동반된 통증이 있었다. 불안정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므로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하였다. 수술장 소견상 파열된 측부인대의 봉합을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저자들은 관절막 리핑을 시행하고 신전건의 일부를 절제하여 원위지골에 금속강선으로 구멍을 만든 후 와이어를 이용하여 박리된 신전건을 통과시켜 고정하였다. 리핑된 관절막과 신전건을 봉합하였다. 그 후 금속강선을 이용하여 원위지골에서 근위지골로 지관관절을 통과시켜 고정하였다.

고정된 금속강선은 수술 4주째 제거하였고, 점차적인 관절운동을 시행하였다. 술 후 2년 추시상 아탈구는 없었으며 내반 스트레스 방사선상 건축과 차이가 없었고, 운동시 지장은 없었다.